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1649억 투입

복합타운 조성·농자재·재해보험
올 8개 사업에 312억원 지원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 보급 등
12개 사업에 882억원 배정

전남도는 올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융복합산업화를 위해 사업비 164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비 절감 ▲과수·채소 등 품목다양화를 통한 소득 향상 ▲유기농생태마을의 융복합산업화 ▲친환경 실천 청년농 집중 육성 등으로 설정한 전남도는 유기농이 전남도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시범 도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가속화 및 융복합산업화 전환을 위해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에 180억원을 비롯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에 56억원,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및 활성화에 12억원,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에 9억원 등 8개 사업에 31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해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417억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에 148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35억원, 친환경 육성기금 융자사업에 70억원 등 12개 사업 882억원을 배정했다.

과수·채소 인증 품목 다양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은 모두 6개로 455억원을 투입한다. 중점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350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50억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3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6억원) 등이 있다. 지난해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19억원)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린뉴딜 정책 등으로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유기농 중심의 품질고급화와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고소득 농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총 인증면적은 4만6041ha로 전국 인증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3889ha로 전국 인증면적의 62%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민 주도 지역문제 발굴하고 해법 찾는다

전남도 '사회혁신사업' 공모
다음달 17일까지 시·군 접수

전남도가 도민 주도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혁신사업 공모에 나선다. 사회혁신사업은 도민의 삶과 관련 있는 지역문제를 도민 또는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달 17일까지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서면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사업별로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혁신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위해 사업량을 15개로 확대하고, 기존 일반분야는 물론 지속분야와 확산분야를 신설했다.

지난해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여수시의 '가치나눔냉장고'와 강진군의 '차이나는 배달소' 사업은 올해 지속분야 사업으로 추진해 2년 연속 도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들의 도입을 희망한 시·군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우 사업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이 처한 문제를 잘 알고 해결 의지가 있는 도민과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혁신 협업의 제 실행과 심포지엄 개최 등 도내 사회혁신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사회혁신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 6개, 2020년 10개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혁신 기반을 다져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숲 휴양지 이용자 96% "만족"

혁신도시 인근 63만여㎡ 숲
지난해 도시민 14만여명 찾아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해 추진한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사업에 대해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가 96.6%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63만여㎡의 광활한 면적에 1000여종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함께 메타세쿼이아길, 향나무길 중심의 경관축을 갖춘 아름다운 숲이 형성돼 있다. 〈사진〉

쾌적한 자연환경을 찾는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해 혁신도시 등 도심 인근의 자연 휴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14만명의 도시민이 이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이용객 482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와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만족도분석)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업별 만족도는 산림치유가 94.1%, 숲 해설 97.9%, 유아숲 교육이 97.9% 등으로 평균 만족도는 96.6%를 보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지친 도시민들에게 위안과 휴식공간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전국 최다 선정

문화관광부 공모 47곳 중 12곳 차지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총 47개소 중 12개소를 차지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9개 시·군 가운데 영암이 3개소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나주 2개소, 담양·곡성·보성·화순·강진·해남·영광이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지역별로 ▲나주 '3917마중', '도래마을옛집' ▲담양 '황토명가' ▲곡성 '심청한옥마을' ▲보성 '(사)한국천연염색 숨' ▲화순 '양동호가옥' ▲강진 '달빛한옥마을' ▲해남 '무선동한옥마을' ▲영암 '소리터', '남향재', '구림한옥마을' ▲영광 '매간당고택' 등이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이 가능한 전통한옥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종가음식 만들기를 비롯 천연염색, 쪽물들이기, 짚풀공예, 창호 바르기, 이엉 얹기, 전통삼베와 한지옷 만들기 등 향토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고택문화·전통놀이·다도·전통혼례 체험 및 한옥음악회 등 남도지역의 특화되고 이색적인 멋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돼 남도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관광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SNS·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한옥버스킹과 천연염색 우리옷 축제, 심청황후음악회가 진행되며, 월별 테마가 있는 전통문화예술공연, 집에서 전통차 맛있게 마시기 비법 소개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도 선을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화훼농가 돕기 소비촉진 나섰다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등 전개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꽃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화훼농가를 돕기위해 장미꽃과 안개꽃 등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1~2월 졸업식과 3월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장미 꽃 1단 가격이 6000원대(광주원예농협 경매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생산비 부담까지 겹쳐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공공기관은 물론 유관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및 '꽃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 데이'로 지정해 오는 2월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꽃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비대면이 강조되는 시기 농산물 소비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해 판촉행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힘든 화훼농가 돕기에 많은 공직자와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내 기업체와 민간에서 선물과 장식, 기부 등 꽃 소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소각산불 제로화' 원년 선포

봄철 산불 예방 본격 대응 나서

전남도가 올해를 '소각산불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68건 중 봄철 화재가 124건(74%)으로, 이 가운데 산림주변 불법소각(55건)과 입산자 실화(23건)가 큰 비중을 차지해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이 55건으로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44%를 차지해 전남도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각 '봄철 K-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도내 산림 428개소 15만4000ha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되며, 산불취약지역 등 산로 208구간 730km가 폐쇄되는 등 산불 사전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원인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100명 투입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인화물질 800t 수거·파쇄 ▲산불임차헬기 8대 권역별 배치 등 대응책도 마련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